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총체적 비리

광주시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이 불공정 공모에다가 엉터리 평가, 게다가 기밀자료 유출까지 총체적 부실 속에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중대 하자가 있다고 보고 재심사에 나선 상태여서 사업자 변경 가능성도 커 이에 따른 법적 소송과 기한 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는 13일 정중제 행정부시장과 운영팀 시 감사위원장, 이점삼 환경생태국장 등 관계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서 5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 가까이 진행된 민간공원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특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제안서 모집 공모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 크게 7가지 문제점이 확인됐다.

우선 제안서 모집 공고를 하면서 토지가격의 경우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시지가로 산정해야 함에도 제안서별 감정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잘못 공고했고, 그 결과 동일한 공원의 토지가격이 제안서별로 제각각이었고 특히 토지가격이 높게 산정된 제안서가 높은 점수를 받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지역에 사업면적이 동일하면 토지가격도 일정하게 적용하는게 원칙이다.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는 ▲공원시설비의 부적정한 산출 ▲토지가격 산정과 평가 부적정 ▲지역업체 평가 미반영 ▲감점 미반영 ▲평가 기준 위반 ▲평가 보고서 사전 유출 등이 감사 결과 속속 확인됐다. 이 결과 2, 3개 업체의 순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공원시설비의 경우 공원시설 이외 비용은 제외하고 평가해야 함에도 설계비와 관리비, 금융 이자, 기타 부대 비용까지 공원시설비에 포함해 평가가 이뤄졌고, 토지가를 산정하면서 일부 제안서가 감정평가 근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감정평가가 아닌 학술용역으로 토지가격을 산정했는데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평가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광주시에 등록된 지역업체는 출자 비율에 따라 평가해야 하는 데도 시에 등록된 업체를 누락한 채 평가가 실시됐고 평가서 내 제안자를 인지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감점이나 무효로 하고, 해당 표시를 삭제한 뒤 평가위원회에 배부해야함에도 확인작업을 소홀히 해 감점 또는 무효 처리하지 않았고 업체명 등도 삭제하지 않은 채 평가위원회에 평가서가 배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감사 불공정 공모·기밀자료 유출 등

아울러 제출된 자료만으로 제안서 평가가 어려운 경우와 평가와 관련한 의견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 평가해야 함에도 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관계공무원이 제멋대로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가 결과 외부 유출도 사실로 드러났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공고 이전에 제안서 평가점수 등이 담긴 결과 보고서가 관계 공무원에 의해 시의회 일부 관계자들에게 유출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운영팀 감사위원장은 "유출자는 현재까지 시 공무원 1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나 시중에 두 가지 버전의 문서가 나돌고 있는 점에 주

목, 추가 관련자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청탁과 항응 의혹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의혹의 출처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감사위는 밝혔다.

시 감사위는 지난 10일 주무부서인 공원복지과에 이같은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평가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제안심사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재논의토록 했다. 1차 재심사는 이날 이뤄졌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이르면 14일 2차 재심사가 있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평가기준이 잘못 제시되고 보고서가 사전 유출되는가 하면 평가업무가 부당 처리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만큼 관련 공직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 엄정 처분키로 했다. 또 추가 비리와 관련자들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사 의뢰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검찰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파장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감사 결과에 반발한 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커 자칫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2020년 7월 이전에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우려되고 있다.

정중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일몰제 이후로 지연폐서는 안된다는 판단에서 제 살을 도려내는 절박한 심정으로 감사에 나섰던 것"이라며 "하무리 작은 의혹, 비리, 잘못이라 할지라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은홍 기자



갈국수 생각나는 겨울 13일 오후 대구 중구 대신동 서문시장에서 시민들이 갈국수와 수제비를 먹으며 추위에 움츠린 몸을 녹이고 있다.

광주·전남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454건 적발

7명 구속·혹색선전 최다

6·13 지방선거 공소시효가 13일 만료되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경찰이 7명을 구속하는 등 총 454건을 적발했다.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공소시효 만료 일인 이날 광주는 총 74건, 100명을 적발했다. 이 중 40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

로 검찰 송치했으며 27명을 불기소 의견, 33명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74건 중 '허위사실 공표'가 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벽보 훼손' 17건, 기타 16건 순이다.

전남경찰청은 총 380건, 722명이 적발됐으며 이중 7명 구속, 288명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 429명에 대해 수사종결했다. 전남도지사, 교육감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사건은 없으며 목포시장 2건, 나주시장 1건, 합

평군수 1건, 강진군수 1건, 장성군수 1건 등이다.

선거사범 단속은 혹색선전이 191명(26.4%)으로 가장 많았으며 급품항응 142명(19.6%), 여론조작 127명(17.5%) 등 순이다.

전남의 경우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411건, 총 664명이 단속됐으며 구속자는 2명에서 7명으로 5명 증가했다.

신봉우·김정환 기자

여수서 차량5대 추돌 5명 부상

13일 오전 6시38분께 여수시 여천동 여천역 앞 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속 추돌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 등 5명이 부상을 입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택시회사 비리 폭로” 40대 분신 소동

술에 취한 채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 분신자살을 예고한 남성이 자살방지보호센터로 인계될 예정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분신자살 예고 소동을 벌인 A(48)씨를 자살방지보호센터로 인계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방송국 2곳에 전화를 걸어 '택시회사의 비리를 폭로한 후 MBC네거리에서 분신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B방송국에 먼저 전화를 건 뒤 C방송국에 전화했다. 경찰은 A씨가 방송국에 전화를 건 휴대폰 번호를 확보한 후 추적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낮 12시40분께 대구시 동구 신명동의 한 택시회사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S택시회사에서 내근직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사장과 마찰로 사직서를 제출 후 술을 마신 뒤 방송국에 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자살기도자로 분류해 자살방지보호센터로 인계할 예정이다.

또 A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없어 입건 등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사 사장과 마찰로 인해 사직서를 쓰고 회사를 나와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를 붙잡을 당시 인화 물질 등은 소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대형 크레인 2대 전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자재운반 크레인인 천공작업 크레인이 함께 넘어져 인도와 도로를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났다.

13일 부산 동래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9분께 동래구의 한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길이 80m, 무게 80t짜리 자재운반 크레인이 작업 중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13t짜리 천공작업 크레인과 부딪혔다.

이어 두 크레인이 함께 쓰러지면서 인도와 도로를 덮쳤다.

사고 당시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 1명이 차량을 급정거를 했고, 허리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게임서 만난 여성 흥기로 찢른 20대 女 체포

온라인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을 만나 흥기로 찢른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23)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신촌역에서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21)와 만나 다툼을 벌이다가 흥기로 수 차례 찢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과 복부 등을 찢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알 수 없다"며 "B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중"이라고 말했다.

부부싸움하던 30대 남성 투신해 사망

부부싸움을 하던 30대 남성이 아내와 말다툼 도중 갑자기 아파트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경기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2시13분께 양주시 옥정동 한 아파트에서 19층에서 사는 A(32)씨가 부인과 말다툼 중 현관문을 열고 나가 복도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A씨는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날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갑자기 밖으로 뛰어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부인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